

## 서양의 전통도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 study about western traditional wallpaper hanging

주저자 : 임선양 (Lim, Sun-Yang)  
동덕여자대학교 디지털공예학과

이 논문은 200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nt )

## 1. 서 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전통 도배의 이론적 고찰

- 2-1. 전통 도배의 기술적 배경
- 2-2. 다양한 종류의 전통 도배
  - 2-2-1. 속지와 덮개를 이용한 도배
  - 2-2-2. 전통 도배와 벽지의 패턴
- 2-3. 전통 도배의 상업적 배경
  - 2-3-1. 전통 도배의 상업성
  - 2-3-2. 벽지 장식의 결정권

## 3. 결 론

### 참고문헌

#### (要約)

벽지는 본래 종이가 지닌 성질상 실내장식에 있어서 수명이 가장 짧다는 특징이 있지만, 벽면의 시각적인 효과의 다양함으로 현대 벽장식 마감재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벽지는 종이의 특성상 역사적 유물 보존이 어렵고 그에 관한 기록이 미흡 하며 건축물의 실내공간이 잘 유지되었거나, 광고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상업용 샘플과 여러 책자에 의해서만 고증되고 있다. 종이벽지와 도배 자료들을 근거로 18세기의 영국을 중심으로 현대 벽지도배의 발전과 벽지산업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해 과거의 전통적 벽지도배의 역사적 배경연구와 기술적, 상업적 배경의 근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전통적 벽지도배의 상업적 역사성을 재 인식하고자 한다. 벽지도배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전통적 도배방법과 초배지의 전승, 반복이음 방식을 이용한 패턴의 양식화, 벽지도배의 분업화와 상업적 비용의 세분화, 과거 전통접착 방법의 전승, 띠벽지의 유래, 전통적 종이벽지의 실용성과 초기 도배기술의 다양한 기능성, 맞대이음 방식에서 중복이음 방식의 변화, 여성의 벽지선택을 통한 DIY제품의 개발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벽지는 지금도 장식적, 기능적 벽 마감재 또는

벽 처리를 위한 가장 대중적인 재료로서 다른 재료들보다도 가장 선호하는 제품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벽지의 도배 기술과 상업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전통 벽지도배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미래 벽지산업의 방법론적 접근을 위한 벽지역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 (Abstract)

Even though the notion exists that wall paper has got a short durability for interior decoration in terms of paper's nature, it can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among the modern closing wall papering because of the variation of the walls visual effect. Wall paper hasn't been preserved well according to the paper's character and official records haven't been done well. So, by studying a case in which a room is maintained well, seeing various commercial samples which were used for an advertisement and reading several booklets it is possible to study historical evidence. In regard to wall paper and papering data, the commercial historic nature of the traditional wall papering has been recognized again in order to study the root of the technical and commercial background. In theory, the historic background research of traditional wall paper in the past is said to have established its theoretical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wall papering in the middle of Britain in 18th century. Through the theoretical study of wall papering, the following things have been researched: handing down the method of the traditional wall papering and lining paper, stylization of pattern by using the method of continual linking, subdivision of commercial cost and specialization of wallpaper, handing down the past traditional adhesion method, the origin of string wallpaper, utility of traditional wallpaper and its various abilities, the change from the face to face linking to duplicated linking, the development of DIY products by women's wallpaper selections. Put against other materials, wallpaper remains the most popular and preferable product for managing a wall and provides a decorative, wall closing technique. This study can estimate the source of wallpapering history in order to create a systemic approach towards the future's wallpaper industry. This is very important data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etical system of traditional wallpapering according to its historical research about wallpapering skills and its commercial aspect.

#### (Keywords)

wallpaper, paper-hanging, a paperhanger (a paperer), wall decoration, canvas, panel, contrasting border, butt-joint, overlap-joint, pattern

## 1. 서 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실내 벽장식에 있어서 벽지는 공간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예술적 역할로 인해 방의 스타일과 분위기 그리고 다른 가구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실내 벽장식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벽지는 종이 제조기술과 인쇄기술의 발전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시작되었고 현대 종이벽지의 소재의 다양성과 현대의 디자인 개발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다.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소재 자체의 기능적 변화와 외형적 디자인 개발을 다룬 종이 벽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벽지 장식기능을 위한 기본 작업 이었던 과거의 전통 종이벽지의 도배에 관한 역사적 배경의 이론적 분석과 연구가 부족했다. 본 논문은 현대 벽지산업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해 벽지의 기초 작업영역으로 도배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벽지도배의 다양성, 상권형성 관계, 파생된 문제점들을 통한 새로운 벽지산업의 사회적 배경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벽지도배의 역사적 근원을 분석함으로서 서양의 종이벽지를 이용한 전통도배의 역사성을 재인식 하고자 한다. 종이벽지 도배의 역사적 배경 연구는 전통도배의 기술적 배경과 기능적 배경의 분석을 하였으며, 속지와 덮개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전통 도배과정과 파생된 문제점들을 통한 벽지의 발전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전통도배의 상업적 배경을 통한 벽지의 실용적 기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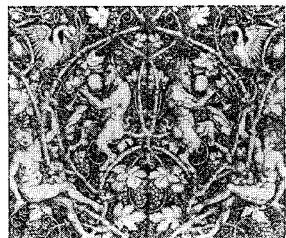
주거용 텍스타일 직물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가 다양한 영역 안에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직물자체의 유물들이 독자적으로 남아있거나, 지금까지 사용되기도 하는 반면, 벽지는 종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역사적 유물 보존이 어렵고 그에 관한 기록이 미흡 할 수밖에 없다. 주거공간의 상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벽지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색과 질이 변하는 큰 단점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청결을 유지하고자 했던 위생적 개념에 부적합하기도 했던 벽지는 세탁이 불가능하다는 기능적 불편성으로 인하여 벽 위에 자주 덧붙여지거나, 찢김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벽지의 영구적인 보존이 어려웠던 벽지도배 자료의 한계점에서 진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종이 벽지들은 공간의 벽 위에 붙여져서 장식되는 이유로 벽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잘 남겨져 있거나, 건축물의 실내공간이 잘 보존, 유지된 역사적 자료와 여러 책들, 광고, 상업용 샘플 등에 의해서 고증되고 있다. 종이벽지의 역사는 현대에 와서 벽지의 장식적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박물관의 고문서나 다양한 수집자료, 역사적 건물이나 인테리어의 그림 장식, 19세기의 벽지제고들, 상인의 계산서, 편지와 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서양의 벽지로 사용된 직물과 텍스타일 벽지장식물이 아닌 종이벽지만을 재료로 한정했으며, 영국을 중심으로 17~19세기를 배경으로 하되 벽지상권형성의 중심시기인 18세기를 주된 연구시기로 정 하였다. 또한 벽지도배의 기술과 기능의 경제성 연구를 위해 종이벽지 들의 전통적 도배방법의 기술

적 요인과 시장 형성의 상업적 구성요인 등의 역사적 배경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벽지도배의 다양한 영역을 이론적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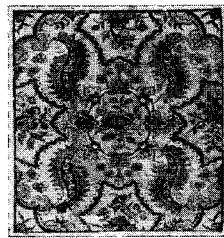
## 2. 전통 도배의 역사적 고찰

### 2-1. 전통 도배의 기술적 배경

최초의 종이 형태로 BC4000년경 이집트에서 사용한 ‘파피루스(papyrus)’는 종이의 어원이 되었고 최초로 종이가 발명(A.D 105)되고 벽지로 사용된 것(B.C 200)은 고대 중국으로 8세기 중엽 서양으로 전파되었다. 1150년 유럽의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종이를 만들었고, 1189년 프랑스와 1276년 이태리에 최초로 제지공방이 세워졌으며, 1405년 인쇄술의 발명으로 제지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다양한 판화(그림1)와 도미노종이(그림2)가 제작되었다. 1481년 최초로 왕실의 주문으로 그림을 그린 벽지가 제작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판목가인 장 미셸 파필론 (Jean-Michel Papillon)에 의해 반복적 연속문양 벽지가 디자인되었다. 18세기는 인쇄기계와 두루마리 종이의 발명으로 벽지의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19세기에 다양한 벽지디자인과 함께 대량생산의 양산체제가 확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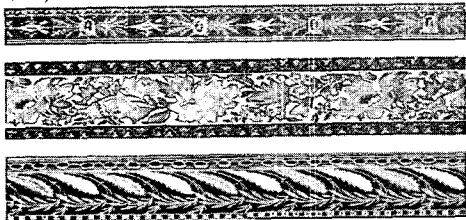
[그림1]



[그림2]

서양의 종교 전물이나 왕족의 성과 귀족들의 저택내부의 전통적 벽장식은 주로 벽화와 태피스트리(tapestry)를 이용하여 실내 벽장식의 예술적 전통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장식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16세기부터는 공간의 아늑함과 미학적인 장식을 위해 벽면 가득히 다양한 텍스타일직물을 걸거나(hanging), 붙이게(covering)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벽지(wall paper)의 장식양식을 형성하는 유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쇄된 종이들이 처음으로 벽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그때부터, 벽지들은 일반적으로 벽에 걸려 지는 다른 재료들 —가죽, 태피스트리, 실크, 벨벳, 프린트된 면—과 구별하기 위해 ‘도배(paper-hanging)’로 묘사되었으며 이 용어는 벽지들을 벽에 붙이는 과정을 기술하는 동사로도 사용되었다. 실제로 벽지들은 여러 텍스타일 직물 벽장식 재료와 같은 도배방법으로 걸려 졌는데 이것은 초기 벽장식이 직물을 벽에 붙이거나 걸었던 과거의 전통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유래가 되었고 벽지 도배를 위한 방법으로까지 전승된 것이다. 1700년경 런던의 엘더멘버리(Aldermanbury)에 있는 블루페이퍼(Blue Paper) 도매상은 영국을 대표하는 벽지제조업체로서 도배를 위한 자세한 지침서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도배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러분이 붙이고자 의도하는 높이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하는 폭만큼 종이를 잘라낸 후, 그것

의 여러 장들을 작은 압정(tack)으로 상단과 하단을 고정시키고, 각각의 종이 폭들 사이에는 테두리 띠(border)를 덮을 만큼의 대략 1인치 정도의 공간을 남겨둔다. 그 다음에 벽지와 동일한 길이로 테두리 띠를 잘라내고, 그것들을 각 종이 폭의 한쪽 모서리를 따라서 똑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덧붙여 고정시킨다. 벽의 상단은 장식으로 두른 돌출부분의 가장자리 테를 두르는 배내기(cornish)를 흉내 내어 이와 동일한 방법을 따르면 되고, 벽의 밑 부분 역시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테두리 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면 된다. 그러나 테두리 띠가 없이 종이의 동일한 폭들을 붙이고자 할 경우엔 각 종이 조각들 혹은 폭들의 모서리들 가운데 한 곳을 매끄럽고 반듯하게 잘라낸 다음 그 옆에 붙일 벽지 폭의 1인치 정도 위에 겹쳐서 그것을 고정시키고 차례대로 다음 종이들을 연결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들을 붙일 때 테두리 띠로 장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축축한 스폰지나 형겼으로 뒷면을 부드럽게 적시어 놓아야만 벽지들이 더 매끄럽게 벽에 잘 달라붙게 될 것이다.<sup>1)</sup> 현대에는 종이를 벽에 붙이거나(gluing) 바르는 (pasting) 도배과정에 대한 기술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이러한 방식은 17세기에 테두리 띠를 두드러지게 대조시켜서 패널(panel)에 화려한 직물을 매거나 고정하는 방식과도 상당히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종류의 전통도배는 1670년대의 서리(Surrey)주 리치먼드 인근의 햄하우스(Ham House)에 있는 여왕의 침실로 통하는 작은 방과 여왕의 사설(私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텍스타일 직물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벽지 위에 테두리 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압정의 머리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잘 가려서 끝마무리가 단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테두리 띠종이는 도배의 효과적 마무리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는데 그것만이 지난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아 벽지장식을 위한 중요한 재료가 되었으며 종이로 된 테두리 띠들은 벽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한 세트로 디자인이 구성되어 판매되었다. 하지만 초기 장식띠의 대부분은 나무의 윤곽선에 금박을 입히거나 건축적 형태의 모티브와 조각품을 이용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19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의 장식 띠 벽지가 제작되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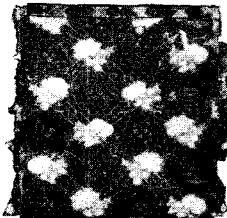
[그림3] 장식띠벽지

이러한 테두리 띠는 종이 위를 고정하고 있는 압정의 윗부분들을 덮어 주거나 또는 넓은 폭을 시각적 무리 없이 나눠주었으며 각 종이의 길이가 겹치는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 해주는 기능적 역할을 위해 대중적으로 사용되었고 테페스트리의 테두리 띠 장식과 건축적 실내공간의 장식적 효과를 벽지 종이위에 미적으로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테두리 띠종이들이 도배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서에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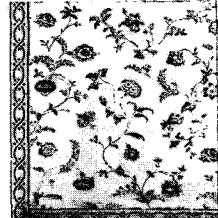
록되었는데 벽지와는 별개로 목록이 작성되어졌다.

18세기 잉글랜드의 주택에 장식된 벽에 사용된 테두리 띠는 벽지 자체의 디자인과 하나가 되어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연속적 문양 등으로 일치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그림4) 벽지의 일부분으로 조화를 이룬 테두리 띠 장식의 한 예로 종이 위에 인쇄된 로코코 스타일의 생명력 있는 꽃문양을 한 벽지(그림 5)는 현대 대마스크 직물을 모방한 것이다. 또한 친츠 스타일로 테두리 띠와 벽지가 잘 어울려져 연결된 벽지 왼쪽 밑의 파손된 부분에 테두리 띠를 이용하여 덮어 줌으로서 벽지를 깨끗하게 보이도록 마무리했다(그림 6).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대조적인 대비를 이용한 다음에 개발된 디자인에 테두리 띠 자체를 만드는 패션이 개발되었는데 한 예로 1780년대 보스톤 출신의 존 월시(John Walsh)는 프랑스에 있는 그의 에이전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벽지와 테두리 띠는 하나의 동일한 주문 내용에 포함된 것이므로 일치된 색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시하면서 “테두리가 더 잘 조화되게 해 주세요. 벽지의 바탕색과 똑같아야 합니다.”<sup>3)</sup>라는 불평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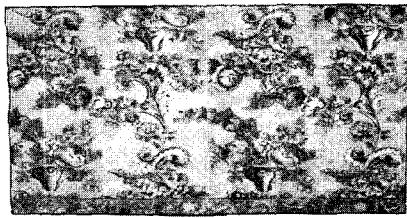
18세기에 테두리 띠가 어느 정도 중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1784년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USA)에서 영국의 공급업체에 보낸 서한의 내용인 “도배지는 테두리 띠가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벽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sup>4)</sup>라는 주장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림4] 영국(1750-75)  
장식띠와 벽지



[그림6] (18c중반)  
친츠스타일 벽지



[그림5] 장식띠와 벽지 (1755-60)

벽지를 도배 할 때 풀로 붙이기보다는 압정으로 고정시켜 벽에 붙이는 방식은 18세기로 계속 이어졌는데 소설가인 리차드슨(Richardson)은 그의 소설 클라리사(Clarissa, 1748~1749)에서 감옥과 같은 방에 대한 묘사에서 “그 방에 있는 벽지 조각들은 아직도 녹이 슨 ‘압정’에 달라붙어 그대로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1784년 후반 무렵 조지 워싱턴은 테두리 띠

1) T. Rosoman, London wallpapers: Their manufacture and use 1690~1840, English Heritage, 10-11.1992,

2) P. Thornton, Authentic décor: The domestic interior 1620~1920, London, 132.1984,

3) L. Hoskins(ed.), The papered wall: The history, patterns and techniques of wallpaper, London: Thames & Hudson, 120.1994

4) L. Hoskins, op. cit., 120.

벽지를 주문하면서 “굽은 못으로 종이를 고정시키는 것이 일상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특수한 효과를 위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만일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sup>5)</sup>라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벽에 종이를 붙이는 일은 벽지가 발생한 초창기 시절부터 아주 대중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1734년 영국의 엘더멘버리에 있는 벽지 도매상 주인인 로버트 던베(Robert Dunbar)가 내어준 영수증에서 도배에 대한 방침들을 살펴볼 수 있다.

“모든 방에 상술한 벽지들을 이용하여 도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방식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각각 종이들의 모서리 한쪽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내어 그 작업에 맞게 매끄럽게 만든 다음, 커다란 압정으로 그것을 벽에 고정시킨 후 압정의 머리 위에 다음에 연결될 폭의 모서리를 붙이면서, 이런 방식으로 벽지를 계속 연결하여 이어줍니다. 그러면 방에 아주 깨끗하게 벽지가 발라져서 꽃들이 계속 연결되어 벽을 꾸미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주의사항: 종이를 벽에 바르기 전에 먼저 축축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창문 옆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해야 하며, 최상의 밀가루와 적당한 물의 양으로 반죽하여 좋은 점성(粘性)을 만들어야 합니다.”<sup>6)</sup>

던베가 제시한 권고 사항들은 적어도 수공 목판 인쇄지를 도배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도배방식의 일부분으로 이 방법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도배하는 사람은 여전히 인쇄되지 않은 한쪽 가장자리를 잘 잘라내어야 했고, 창문을 보는 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도배를 진행시킴으로 위에 겹쳐지는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게 하였다. 여러 곳에서 발견된 벽지들을 통해 던베가 기술한 방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초기의 도배는 종이의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서 대부분 종이 양쪽의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맞대어 길이를 잇는 접합 방법인 ‘맞대 이음(butt-joint) 방식’을 이용하였고, 19세기부터 모든 벽지는 폭과 폭이 접해지도록 양쪽이 서로 겹쳐져 이어지는 ‘중복이음(overlap-joint)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이 방법은 현대에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현대 벽지디자인에 여러 가지 인쇄 방식이 사용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목판 인쇄된 벽지에는 언제나 가장자리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수공 목판을 사용하여 종이 모서리까지 직접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고 고정을 위한 압정을 이용할 가장자리가 필요했으며 인쇄기와 종이에 표시된 색상을 가지고 각 색의 판목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벽지를 걸기 위해 압정을 사용하면서 뒤쪽에 접착제도 함께 발랐었는데 던베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도배를 위해 사용된 접착제는 보통 밀가루와 물을 섞은 평범한 반죽에 불과하였다. 가구 디자이너인 토마스 셰라톤(Thomas Sheraton)은 도배에 이용되는 접착제에 대한 사용법을 제시하였다.

“...밀가루에 물을 혼합하여 팔팔 끓여 놓는다. 밀가루는 찬 물에 섞어야만 뎅어리가 생기지 않는데 그것을 끓이기 전에는 우유보다 더 결쭉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아주 끈끈하게 만들고 싶다면 거기에 아라비아고무를 녹여 섞으면 된다. 이렇게 섞어놓은 반죽이 끓으면

그것이 진하게 농축되어 딱딱한 젤리처럼 변할 때까지 계속 저어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끓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비법이 제시됨에 따라 좀 더 무거운 종이에는 더 강력한 혹은 더 ‘끈끈한 접착제(tenacious)’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런 접착제는 젤라틴과 아라비아고무 혹은 동물성 아교와 같은 물질을 혼합시켜서 만들 수 있었다. 식모(flock)벽지와 같이 가장 무거운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발굽과 뿔로 만든 완전한 쇄기 아교(scotch glue)를 사용하여 왔다. 종이는 회반죽을 바른 벽에 직접 바르거나, 회반죽이 완전히 말랐을 경우에는, 아마포, 삼베로 된 속지 또는 속감 위에 종이를 붙이기도 하였다. 조지 워싱턴이 지니고 다니던 노트에는 처음 방식을 사용하여 벽지를 바르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들어있다.

“벽이 흰 도료로 칠해진 상태라면 종이를 아교로 붙이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섞지 않은 평범한 밀가루 반죽을 사용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반죽은 가장 미세한 최상의 밀가루를 사용하여야만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죽은 빠빠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물을 섞으면 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반죽은 종이 위에 바른 후 종이에 스며들기까지 대략 5분가량은 그대로둔 다음에 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형짚을 가지고 벽을 꼭꼭 눌러서 모든 부위들이 잘 달라붙도록 만든다. 조금이라도 주름이 생기면 미리 그 위에 커다란 종이를 올려놓고 형짚을 이용해 그 부위 전체를 문질러 주어야 한다.”<sup>8)</sup>

이러한 도배에 관한 다양한 지침서들은 각 벽지 도매상에서 도배공을 훈련시키거나 그들의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 2-2. 다양한 종류의 전통 도배

### 2-2-1. 속지와 덮개를 이용한 도배

벽지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750년 영국의 디레니(Delany)부인이 관찰한 바와 같이, 속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었다. “종이를 벽 위에 바를 때에는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맨 벽 위에 종이를 바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덮개(canvas)를 속에 댈 경우에는 항상 모서리 쪽에서부터 주름이 생기게 된다”<sup>9)</sup>고 설명했다. 덮개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들이 흔하게 발생했는데, 그 한 예로 구스타브 플勒벨트(Gustave Flaubert)는 보바리 부인(1857)이라는 저서에서 벽의 덮개(canvas)위에 벽지가 불완전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카나리아 빛 노랑 벽지는 위쪽 모서리를 따라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떨리고 있는 시든 꽃

5) G. Saunders, *Wallpaper in interior decoration* 37,2002. ; G.W. to Clement Biddle, June 30, 1784.

6) T. Rosoman, *London wallpapers: Their manufacture and use 1690~1840*, English Heritage, 11,1992.

7) T. Sheraton, *The cabinet dictionary*, 281. 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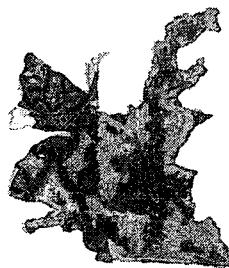
8) Sugden & Edmonson, *A History of English Wallpaper 1509~1914*, London: B.T. Batsford Ltd. 51,1926,

9) Mrs. Delany, *Llanover(ed.)*, *Autobiography and correspondence of Mary Granville II*, 562, 1861-1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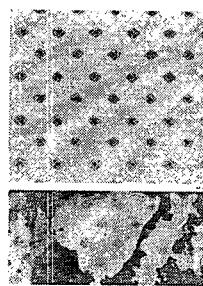
가지를 때문에 눈에 띄었다”<sup>10)</sup>고 기술하고 있다.

1760년 소호 스웨어 26번지에 위치한 윌리엄 로빈슨경의 집에 걸린 진홍색 식모벽지는 대부분이 회반죽을 바른 벽 위에 바로 발라졌는데, 약간의 부위에만 먼저 속지를 대거나 다른 재질의 벽지들을 붙여 다중의 효과를 유도했으며(그림7) 1732년경 샥크빌 스트리트 29번지에 걸려있던 꽃무늬 벽지는 판지에 대고 붙여진 것으로 19세기 초까지는 종종 거친 카트리지 종이 같은 속지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치펜데일(Chippendale)은 ‘덮개 위에 한 층을 더한 폭 만큼의 종이 벽지를 풀로 도배하는 비용’에 대해 2파운드 11달러 9다임을 요구했다.<sup>11)</sup> 더 저렴한 방식으로는 벽 위에 직접 풀을 바른 그 위에 직접 벽지를 붙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1786년 필라델피아 출신 토마스 헐리(Thomas Hurley)는 벽지를 광고하면서 “평평한 벽에는 한 장 당 1달러 6센트, 종이와 덮개용 속지를 풀로 바르는 데에는 3달러의 저렴한 도배비용이 드는데 그곳의 종이는 바른 후에는 결코 늑눅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 한다”<sup>12)</sup>고 강조하였다.

습기는 도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 벽 위에 풀로 종이를 직접 바른 경우에 종종 종이가 늑눅해지거나 종이의 색들이 발할 수도 있다.



[그림7] 두겹이 도배된 벽지(1760-70)



[그림8] 벽지와 나무판(1793-94)

1800년경에 미국에서 발송된 서한에는 속지 사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는데, “제가 보내드린 종이는 속지로 적합한 것으로 —먼저 방의 벽 전체를 풀로 잘 바른 후에 종이를 벽 위에 붙이는 것— 이것은 벽지가 풀에 흠뻑 젖지 않도록 하여 얼룩 발생을 방지하며, 종이의 색을 퇴색시키거나 외관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방을 깨끗하게 도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속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종이를 평평하고 매끄럽게 배치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sup>13)</sup>라고 설명했다.

식모 벽지나 고가의 중국산 종이는 종종 견고한 속지나 덮개 같은 재료를 이용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벽 위에 우선 속지를 바르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거나 나무판(batten) 위에 벽지를 도배해서 벽에 단단히 달라붙게 하는 고가의 벽장식을 하였다.(그림8)

제임스 에로우스미스(James Arrowsmith)는 “도배공이 싸워 야만 하는 최악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속지와 나무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14)</sup>고 기술했다. 나무판을 이용하는 방식이 지난 또 다른 훌륭한 장점은 종이를 이동시킬 수도 있으며 나중에 판을 해체하여 폐어낼 수도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공간속 벽과 판자에 공기층이 만들어 져서 벽과 직접 접촉되는 벽지 장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벽지를 보호할 수 있었다. 중국산 수공 인쇄지들의 경우에는, 풀을 종이 위에 직접 바르기에는 너무 고가의 귀한 것이므로 나무판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며 종이를 벽에 발랐다고 할지라도 특히 반죽이 제대로 혼합되지 않을 경우나 너무 묽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죽 자체로 인해 종이에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속지나 나무판을 이용하는 등의 고도의 도배 기술을 활용하였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65년 그가 런던에 머무는 동안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집의 실내장식을 새롭게 했는데 그의 아내는 그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속지를 벽 위에 먼저 붙이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니까 벽지 위의 얼룩이 없어진 것 같다”<sup>15)</sup>고 속지활용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발견하였다.

이렇듯이 접착제로 인한 습기는 벽지를 도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도배들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기술개발은 벽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었다.

## 2-2-2. 전통 도배와 벽지의 패턴

1599년 프랑스에 도배공들의 동업조합(guild)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프랑스의 목판공인 장-미셸 파필론이 벽지의 연속이음 방식을 이용한 벽지를 제작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현대 벽지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 유형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1734년 던베가 도배를 위해 서술한 지침서의 내용들에는 ‘꽃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권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처음 붙인 종이를 옆에 있는 종이로 깨끗하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벽 전체의 연결문양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종이를 울퉁불퉁한 벽에 도배 할 때 패턴의 연결은 더 힘든 과정이었으며 때로는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양쪽부분은 겹쳐지는 종이의 연결부위로 인해 감추어질 수도 있었다.(그림7) 그러한 한 예로, 영국의 샥크빌 스트리트 29번지에 있는 꽃 패턴의 벽지는 가장자리의 이음새 부분에 남아 있는 벽지에서 꽃 모양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 결함이 눈에 덜 떨 수 있었다. 불일치 된 벽지의 이음새들은 조형적 모티브의 디자인이나 그림과 같은 디자인보다는 꽃 모양 패턴과 같은 유기적인 선을 이용한 디자인에서 당연히 그 부조화가 덜 느껴질 수 있다. 미국 작가인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는 그의 소설 의 한 구절에서 도배 후에 나타나는 잘못된 벽지디자인의 결과로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코믹한 효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소설에 묘사된 벽지는 18세기에 장식된 실제의 벽지를 표현했는데, “브리타니아가 울프 대령의 죽음을 애도하며 호느끼고 있고 영웅이 된 그는 애도하는 그녀와 조금 떨어진 채 몸은 여신을 향해

10) G. Flaubert, *Madame bovary*, Part I, Ch.5, 1857. ; E.A. Entwistle, op. cit., 102.

11) T. Rosoman, op. cit..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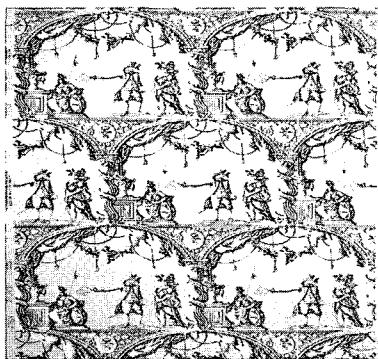
12) T. Hurley, *Pensylvania packet*, Philadelphia, October 5, 1786.

13) C. Lynn, *Wallpaper in America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to World War I*. New York: Norton, 501, 1980

14) J. Arrowsmith, *The paper-hanger's and upholsterer's guide*, London, 16. 1851,

15) L. Labarre(ed.), *The papers of Benjamin Franklin and others*, London: New Haven, 154.1968.

있으며 그의 팔은 브리타니아를 향해 있었는데 이상한 부분은 반복될 때마다 바로 벽지의 가장자리 모서리 부위였다. 일정한 폭의 벽지마다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 대령의 한쪽 팔이 절단되어 있거나 그의 팔이 그 다음 종이 위에 걸쳐져 있었다.” 이러한 약간의 문제점들은 벽지의 연결을 매끄럽지 못하게 하였으며 “결국 브리타니아가 애도해야 할 진짜 이유는 그녀의 소중한 삶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의 오른쪽 팔은 수도 없이 잔인하게 절단되어야만 했다”<sup>16)</sup>는 서술을 통해 반복으로 인한 벽지패턴의 아이러니를 묘사하고 있다(그림9). 이 소설에 사용된 벽지가 20세기 미국의 토마스 스트레한(Thomas Strahan Co)회사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대령의 팔은 이미 연속이음 방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 벽지는 필라(Pillar)와 아치(Arch) 양식을 이용하여 18세기 말에 처음 제작되었는데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정치적 강한 메시지를 담고자 제작하였다.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상(여신)과 장교의 발에는 영국의 법이라는 깃발이 깔려 있음으로써 미국 독립을 통해 영국 귀족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나약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으며 현실적 이해를 돋기 위해 그의 손에 있는 종이에는 1776년 7월 4일(미국독립기념일)을 적은 깃발을 미국의 독립을 통해 슬퍼하고 있는 영국 귀족의 부인(브리타니아)을 향해 제시하고 있는 모습은 벽지로 사용되기에에는 상당히 시사적 풍자를 유추하고 있는 벽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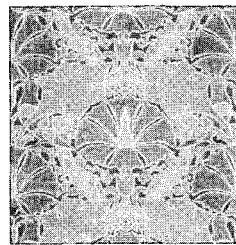


[그림9] Ipswich 벽지(재 제작) 195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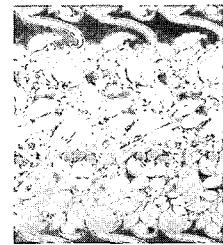
찰스 보이지(Charles F.A. Voysey, 1857~1941)와 같은 벽지 디자이너들은 벽지의 패턴들로 인해 도배가 원활하지거나 혹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여러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보이지는 “반복되는 작은 문양들이나 간단한 패턴들은 이음새가 드러나기 쉽고 그러한 문양들은 모퉁이를 도는 부위에서 절단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그의 벽지디자인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자연스런 형태들을 양식화하는 것이었다(그림10). 그가 발견했던 바와 같이 “실제로 새의 머리가 질려진 모습은 보기 흉할 것이다… 그러나 새의 모습은 새 자체로 인지되는 상징적 형상만을 이용하여 새롭게 디자인되고 묘사되어 새가 벽지 넓이 내에서 어느 정도 완전해 보이는 크기로 반복되는 디자인이 된다면 새의 몸 일부가 절단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새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전체적 느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sup>17)</sup>라고 강조하였다(그림11).

벽을 깨끗하게 하고 벽지를 잘 잘라내는 일부터 속지를 대거나 평평한 나무판 등을 사용하는 일까지 도배의 전체과정을

파필론이 삽화를 이용해 “예술과 재료(Des arts et des metiers)(1751~1757)”라는 책에 설명하였다.(그림12).



[그림10] 1897  
살라딘 벽지



[그림11] 1833  
찰스보이지

그 그림들은 한 번도 출판된 적은 없지만 도배 과정에서의 여러 다른 단계들을 기술하고 있다. 각 패널 주변에 수직 경계선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대안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스타일의 도배에 대한 설명도 있다. 꽃무늬 벽지와 중국풍 그림이 종이 위에 그려져 있지만 그 그림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침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 할 수는 없으나 주로 이용했던 디자인이 그 당시의 고가로 사용된 것들로 추정되며 이러한 방법들이 플록벽지와 같은 특수재질의 벽지 도배에도 적절한 사용방법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파필론이 그린 삽화의 제일 상단의 그림은 각각의 작은 종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연결되어 접착되었으며 인쇄된 벽지들이 길게 롤에 감겨 생산되던 19세기 초기까지는 맞대 이음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거나 짧은 길이의 종이들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였으며 인쇄된 종이들을 벽 위에서 계속적으로 연결해감으로서 필요한 벽지길이를 만들었다. 테두리 띠에 관한 다양한 예도 볼 수 있는데, 종이와 종이가 연결된 이음새의 윗부분을 덮거나 가장자리를 단정하게 마무리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배를 위해 종이를 재단하고 풀을 칠하며 벽에 붙이는 과정 등 도배 전체 과정의 분업화를 통해 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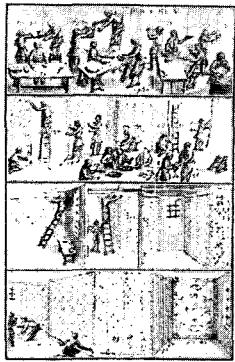
## 2-3. 전통 도배의 상업적 배경

### 2-3-1. 전통 도배의 상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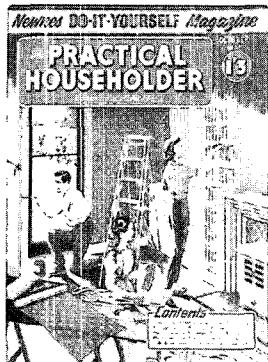
오늘날 오래된 벽지들은 마구잡이로 찢어 내거나, 가늘고 길게 찢겨 나가거나 중기를 이용해 제거되었다. 그러나 18세기와 19세기에는 보편적으로 기존의 벽지 위에 직접 새로운 벽지를 붙여서 도배를 했는데 이로 인해 종종 여러 겹의 벽지들이 벽 위에 쌓이게 되었다. 그러한 한 예로 미국 커네티컷의 페어필드에 있는 나탄 비얼스 하우스(Natan Beers House)에서 1820년부터 한 세기가 끝나는 동안 모두 13겹의 벽지 층이 발견되었으며 영국의 집들에서도 22겹이 되는 벽지 층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는 벽이나 나무판 위에서 종이를 벗겨내는 것보다 이미 도배되어 있는 벽지위에 직접 새로운 벽지를 덧붙이는 것이 도배비용도 절감되고 작업이 용이하게 빨리 끝난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16) J.F. Cooper, *The pioneers* 1823, New York: Penguin, 64. 1988,  
17) Charles F.A. Voysey, Architect and designer, *The Studio*, Vol.1, 233. 1893,

다. 도배하는 사람들은 벽지를 찢어 내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했고 새로운 벽지를 붙이기 전에 먼저 벽지를 벗겨 내는 준비를 하였다.



[그림 12] 도배도감 18c



[그림 13] 잡지 표지

두꺼운 식모벽지들은 일반적으로 끈끈한 동물성 아교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벽지들을 벗겨 내는 작업은 너무 어려웠기에 일의 편리상 종종 기존의 벽지 위에 직접 붙이기도 했다. 벽지의 제조업자들은 종종 도배하는 노동자들을 제공했는데, 치펜데일은 도배공들을 항상 준비 시켜 그가 제공하는 벽지를 도배했었다. 그의 도배비용 청구서에는 “벽지를 붙이는데 드는 비용, 압정, 속지, 캔버스 그리고 도배사들… ”등으로 세밀히 나누어져 있다. 1772년 런던의 해그사(Haig & co.)의 청구서는 데비드 게리크의 집에 도배를 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다양한 재료의 리스트가 첨가되어 있었다.

“뒷방…작은 나무판과 못 등…” 방의 벽을 채우기에 적절한 규모로 속덮개(Canvas)를 사용할 경우는 72 야드, 덮개나 종이로 걸때는 7첩(帖), 압정들, 풀 반죽 등… 방의 벽지는 당신만을 위한 인도 종이에 폴반죽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해 4월 1일 복도 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되어서 “덮개와 종이를 벽에 걸었고, 그 후 인도 종이를 이용하여…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적혀 있다.<sup>18)</sup> 1753년 4월 24일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의 청구서에서 보여 지듯이 그는 도배사와 벽지를 동시에 제공했는데 그 안에는 사용하는 벽지와 도배사에 대한 비용이 각각 청구되어 있었다.<sup>19)</sup> 런던 피카딜리(Piccadilly)의 존 시그리스트(John Sigrist)의 업무용 명함에는 제공되는 벽지들의 리스트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벽지를 똑같이 걸거나 붙일 수 있는 숙달된 도배사들이 있습니다”라는 광고문을 적어 놓았다. 종이를 인쇄하는 런던의 회사와 장식업자들은 종종 그들의 노동자들을 도배를 위해 주택가에 보냈는데 1768년 런던 루드게이트 힐(Ludgate Hill)에서 장식업을 했던 브롬위치(Bromwich)는 앤들리 엔(Andley End)에 노동자들을 보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오래된 벽지를 벗겨냈고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3달러 6다임을 청구하여 일이 마무리되기까지에는 12일이 걸렸는데 그들이 숙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5달러였다. 1년 후인 1770년 그들이 도배를 다시 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앤들리 엔으로 출장을 갔을 때에는 단지 2기니(guineas)가 출장경비로 지출되었다<sup>20)</sup>. 이러한 자료는 결국 도배에 대한 수요가 늘고 노동자 및 도배사들의 공급이 확대되어 노동비의 절감과 벽지의 대중화를 추정할 수 있다.

종이 벽지를 도배하는 방법은 종종 벽지를 판매할 때 중요한 강조점으로 다루어 졌는데 토마스 풀러(Thomas Fuller)는 “그의 상점에 새로운 식모 벽지와 중국풍의 종이가 있다”<sup>21)</sup>고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도배방법보다 좀 더 새롭고 더 좋은 취향의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통해 벽 위에 직접 붙이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sup>22)</sup>

치펜델과 같은 장식업자들은 줄무늬나 균등하게 칠해지지 않은 듯 보이는 무늬가 없고 손으로 채색된 단순한 색상의 벽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벽지와 흡사하여 그 당시 업자들이 세금을 탈세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1817~1822년까지 슬로덴사(Sladden & co.)에서 제작한 듀파(Duppa)의 문양 책에는, 무늬가 없고 색상만을 이용해 채색되어 있는 여러 샘플의 벽지들이 있었다. 이러한 벽지들은 일반적으로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녹청색의 안료를 칠한 것처럼 보이는 종이로 알려졌다. 조안 조파니(Johann Zoffany)가 그린 쉘본 파크(Sherbone Park)의 거실에 있는 듀튼 가족(Dutton Family, 1771)의 회화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벽은 청록색을 띠고 있는 벽지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 벽지들은 금박을 두른 액자의 장식을 위한 배경색으로 효과가 좋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벽장식에 종종 선택되었다. 메리 코크(Mary Coke)는 “거의 모든 방에는 밝은 녹색의 종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색상의 벽지들은 그림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sup>23)</sup>고 서술했다. 이렇듯 세금 탈세를 위해 아주 효과적이었던 단순 색상의 벽지 사용은 장식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데 그 사용의 예로 1769년 조파니(Zoffany)에 의해 영국의 로우렌스더스경은 그의 집에 벽을 녹청색으로 칠을 했으며 로랜드원경은 노스텔 수도원을 위해서 녹색과 청록색의 벽지를 주문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이러한 유행되는 표본적 벽지 취향을 다 만족해하지는 않았는데 치펜델의 고객인 에드먼드 크나치불(Edmund Knatchbull)경은 “녹색의 벽지가 있는 공간은 일하는 남자들에게 이를 이상을 견디지 못할 만큼 업무상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sup>24)</sup>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벽지의 사용을 반대했다.

19세기 중엽에 인쇄술의 발달로 가격이 저렴한 벽지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자 등의 하위계층 가정에서는 대부분 그들 자신이 도배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20세기까지 계속 되어졌다. 잉글랜드 북쪽지역의 도배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정주부들의 가장 지루한 일들 중의 하나였는데, 1940년 제조업자들의 문양 책에는 ‘벽지는 여자를 자신이 도배할 수

18) C. Gilbert, *The life and work of Thomas Chippendale*, London, 246-247. 1978,

19) T. Rosoman, op. cit., 8.

20) G. Saunders, op. cit., 41.

21) Universal Advertiser, 1753. 2. 13 / 1754. 4. 6.

22) T. Fuller, *History of the dublin wallpaper industry in the 18th century* in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Antiquaries of Ireland for the Year*, 101-116. 1947,

23) E.A. Entwistle, *A literary history of wallpaper*, London: B.T. Batsford Ltd. 50, 1960,

24) G. Saunders, op. cit., 41.

있는 일'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여성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1942년 리벅(Rebuck & co)사의 시얼스(Sears)에 의해 만들어진 완벽한 색 벽지(Colour-Perfect Wallpaper) 잡지 표지의 일러스트에는 한 주부가 그녀를 돋고 있는 어린 딸과 함께 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16세의 소녀가 자기 방을 장식하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종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책 표지에 광고했다.

1957년 *프랙티컬 하우스홀드(The Practical Household)* 10월호의 표지에 그려진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DIY 잡지들은 벽지를 쉽게 도배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가족 전체가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주고자 했다.(그림13)  
방안에 서로 대조되는 패턴들을 이용한 현대적 취향의 벽지들이 도배되어 있고 방안의 벽난로가 돌출한 부분과 비슷한 장식으로 디자인된 종이를 이용하여 새롭운 옆의 벽면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도배는 더욱 실용적이며 간편하게 이용되었고 제조업자들은 벽지 뒤쪽에 미리 접착제가 붙어 있는 접착식 종이벽지와 같은 새로운 벽지를 개발하려는 의욕을 갖게 되었다.

### 2-3-2. 벽지 장식의 결정권

18세기에는 집에 가구를 비치하고 어떤 실내장식으로 꾸밀 것인지 결정하는 책임은 남성의 영역이었다. 치펜델은 건축과 가구가 삽화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나 실내장식들의 제안과 설명이 있는 책을 만들었는데 치펜델의 저서(Gentleman and cabinet-maker's director(1754)) 일반적인 구독자들은 런던의 일류 기술공들뿐만 아니라 신사들과 귀족들 그리고 상류사회 구성원들이었다. 실제로는 여성들도 종종 실내장식을 시작하고 관리하게 되었는데 18세기 업무용 명함과 광고들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벽지를 골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남자들이 선택했던 실내장식의 결정권을 포기하고 여성들에게 모든 벽지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한 예를 1787년 데비드 스페어는 그의 약혼녀 마시 히긴스에게 벽지를 사는 것에 관해서 물었다. 그는 현재 유행하는 취향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구매 결정을 위한 어려움을 “거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벽지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살려고 하는지 완벽하게 잊어 버렸어”<sup>25)</sup>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광고된 전형적인 벽지들은 200개 이상이 진열되어 있었다”<sup>26)</sup>고 항변하였다. 또 다른 예로, 1858년 벨몬트(Velmont)의 실비아 리온이 결혼을 할 때, “실비아는 종이를 사기 위해 돈을 준비했는데 그녀 자신이 벽장식을 하기 위해 필요했다”<sup>27)</sup>는 서술을 통해 벽지장식이 여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는 가정에서 실내장식이 여성의 주 역할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정기간행물 발행인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구 비치와 실내장식 가이드 저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1900년 경의 미국 포스터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은 여자 손님이 남자점원으로부터 샘플들을 소개받고 있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매고객이 주로 여성들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당시 주로 사용된 패턴들이 아르누보 스타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꽃문양과 로코코식 재현문양 등이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sup>28)</sup> 벽지 쇼룸 내부에 걸려있는 석

판인쇄로 제작된 여러 색상의 벽지들 앞에 여성고객들을 앉게 하고 그 옆에 다시 새롭게 재현되는 스타일의 벽지샘플을 정리하여 걸어 두었다. 이렇게 여성의 중점적으로 표현된 것은 벽지 선택의 결정을 여성의 향을 암시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의 주거장식을 다루는 잡지 대부분의 독자들이 여자였으며 작가들은 ‘집은 여자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존 러스킨이 저술한 저서(A Woman)에서 “지성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리와 결정을 통한 달콤한 주문들과 정확한 품질은 집의 장식과 가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 이었다”<sup>29)</sup>라고 기술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다음 세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1913년 엘지에 드 울프(Elsie de Wolfe)는 “여주인의 개인적 성격이나 성향은 집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남자는 우리 가정의 영원한 손님이며, 그들은 집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sup>30)</sup>고 서술하였다.

1920년과 30년대에 벽지 제조업자들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집’이라고 언급하면서 여자들의 취향을 위해 아첨하거나 자신을 위해 최고로 장식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통찰력과 인지력이 필요했는데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에 와서는 집의 장식이나 도배 등을 위해 남녀가 서로 상의하고 함께 결정을 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벽지 장식의 선택 결정권을 갖고 있다. 집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대에 와서 중요한 레저 활동이 되었고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배기술 훈련과정과 도배사 양성 교육 등의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배의 기본적인 작업들에서 시작하여 다시 거듭나는 새로운 도배 장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3. 결 론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과거의 전통적 종이벽지의 초기 도배의 역사적 배경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전통 도배의 기술과 기능의 경제성 연구를 중심으로 전통적 도배 방법의 기술적 요인과 시장 형성의 상업적 구성 요인 등의 배경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전통적 도배와 다양한 도배 방법과 접착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대에 까지 기술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 둘째, 벽지디자인과 도배의 관계를 통해 반복패턴의 양식화가 시작되었고, 디자인의 연결이음 방식을 이용한 패턴의 반복과 모티브의 배열방식이 직물과 동일한 점 셋째, 직물이 벽에 직접 걸리거나 패널 위에 장식된 과정이 벽지의 도배과정과 같다 점 넷째, 압정을 이용한 중복이음 방식의 도배는 18세기에 없어졌지만 압정을 가리기 위해 테두리 띠를 이용했으며 이것은 현재의 띠벽지의 유래가 되었다는 점 다섯째, 고가의 벽지는 색상의 보호와

25) E.D. Garrett, *At home: The American family 1750-1870*, New York: Abrams, 267. 1989,

26) Thomas & Caldclough in the *Baltimore Federal Gazette*, May 29, 1801.

27) E.D. Garrett, op. cit., 267.

28) G. Saunders, op. cit., 35.

29) E.T. Cook & A. Wedderburn(eds.), *The Works of John Ruskin*, London, 121-122. 1903,

30) Elsie de Wolfe, *The house in good taste*, 5. 1913,

습기 방지를 위해, 벽 위에 속지나 덮개를 붙이거나 널빤지 위에 도배를 했는데 이것은 현대의 초배지 사용의 유래가 된다는 점 여섯째, 도배할 때 벽지 접합 방법이 18세기 맞대 이음 방식에서 중복 이음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 일곱째, 도배 중에 벽지를 벗겨내는 과정이 비용으로 청구되는 등 도배의 분업화와 상업적 비용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여덟째, 종이 벽지의 소비와 생산의 시장 형성과 변화에 따른 시장성과 경제성의 원리가 벽지시장의 근본적 배경이 된다는 점 아홉째, 벽지 장식의 선택 결정권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한 도배 방법을 위해 D.I.Y 상품 개발의 상업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중엽 노동자들은 속지를 이용하지 않은 저렴한 벽지를 직접 도배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는 장식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을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벽지를 모든 도시와 교외의 도매점인 D.I.Y 전문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상권과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때부터 사회적으로 도배는 실내장식을 위한 여자들의 가사일로 묘사되었고 D.I.Y 잡지들은 가족이 함께 도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현대의 제조업자들은 도배가 용이하도록 뒷면에 접착제를 발랐거나 테이프를 부착한 벽지를 개발하거나, 종이위에 P.V.C 특수 코팅이나 효과를 첨부하여 접착시에 풀어지는 방지를 해주는 효과나 살균, 방충, 방수 등의 기능을 겸비한 특수소재 등을 이용한 시트지 유형의 필름지 등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된 벽지가 시판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주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실내장식용품 및 텍스타일 마감재 등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에서 진열 판매되거나 다양한 책이나 정기 간행물을 통해 실내장식의 정보가 다양해진 만큼 선택의 폭도 확대되었다. 또한 실내 장식 전문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벽지를 미리 공간속에 가상으로 배치해 봄으로써 도배 후에 가구와의 조화를 예상하는 등의 전문적인 도배 장식의 기능과 효과가 기술적으로 발전되었다. 현대에 와서 벽지는 넓은 실내장식 영역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가장 대중적인 재료로서, 장식과 실용이 겸비된 벽 마감재로서, 많은 벽지 도소매 제조업체와 실내 장식업체, D.I.Y 전문 매장,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다. 현대의 실내장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된 벽지는 다양한 기능의 소재와 디자인을 통해 장식을 위한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른 실내장식업자와 제조업자의 다양한 상권의 폭 넓은 형성은 도배 산업의 대중화와 기술의 전문화를 형성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벽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도배 기술과 상업성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전통 벽지도배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미래 벽지산업의 방법론적 접근을 위한 벽지역 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사료 된다. 또한 본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선행연구의 부족과 종이의 특성상 자료의 한계로 조사 자료가 문헌에 한정되어 있고 산업화 되어진 외국 업체들의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업적 요소가 완전히 포함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C. Gilbert, *The life and work of Thomas Chippendale*, London, 1978,
- Charles F.A. Voysey, *Architect and designer*, The Studio, Vol.1, 1893,
- Chippendale, T., *The gentleman and cabinet-maker's directo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66.
- C. Lynn, *Wallpaper in America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to World War I*.NewYork: Norton,1980
- Eastlake, C.L., *Hints on household taste, in furniture, upholstery and other details*,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78.
- Edis, R.W., *Decoration and furniture of town houses*, London: C. Kegan Paul & Co., 1881.
- E.T. Cook & A. Wedderburn(eds.), *The Works of John Ruskin*, London, 1903,  
Elsie de Wolfe, *The house in good taste*, 1913,
- E.A. Entwistle, *A literary history of wallpaper*, London: B.T. Batsford Ltd. 1960,
- E.D. Garrett, *At home: The American family 1750-1870*, New York: Abrams, 1989,
- Gere, C., *Nineteenth-century decoration: The art of the interior*, London: Weidenfeld & Nicols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9.
- G. Saunders, *Wallpaper in interior decoration* ,2002. ;  
G.W. to Clement Biddle, June 30, 1784.
- G. Flaubert, *Madame bovary*, Part I, Ch.5, 1857
- J. Arrowsmith, *The paper-hanger's and upholsterer's guide*, London, 1851,
- J.F. Cooper, *The pioneers* 1823, New York: Penguin, 1988,
- L. Hoskins(ed.), *The papered wall: The history, patterns and techniques of wallpaper*, London: Thames & Hudson 1994
- L. Labarre(ed.), *The papers of Benjamin Franklin and others*, London: New Haven,1968.
- Mrs. Delany, *Llanover(ed.)*, *Autobiography and correspondence of Mary Granville II,1861-1862*,  
P. Thornton, *Authentic décor: The domestic interior 1620~1920*, 1984,
- Sugden & Edmonson, *A History of English Wallpaper 1509~1914*, London: B.T. Batsford Ltd. 1926,
- T. Rosoman, *London wallpapers: Their manufacture and use 1690~1840*, English Heritage,1992,
- T. Rosoman, *London wallpapers: Their manufacture and use 1690~1840*, English Heritage, 1992.
- T. Sheraton, *The cabinet dictionary*, 1803,